

'해남 솔라시도'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시범운행지구' 선정...260억원 투입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돼 사업 탄력...관광 사업과 시너지 기대

해남의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연말까지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8.2km 구간에 대해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솔라시도는 지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 시티 실시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국비 156억원을 포함 총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말까지 스마트 기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자차단체와 민간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해남군, BS산업, SK증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실시계획'을 세웠다.

해남군은 '미래도시 표준, 솔라시도'를 내걸고 스마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 셔틀버스,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 구현, 태양광 기반 압축 스프레이 처리,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이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8.2km 구간은 국토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솔라시도에서는 12인승 자율주행차 7대가 운행

된다. 스마트 기기 앱을 활용해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자 특성에 따라 운행하는 고정노선과 거점환승센터를 통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사용자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와 다양한 도시정보를 받게 된다. 운행하는 버스는 종점(거점환승센터)에서 자동 주차·충전을 한다.

해남군은 솔라시도를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태양광으로 도시가 운영되며 메타버스 관광 체험이 가능한 미래 도시로 가꿀 계획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2089만㎡(632만평)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된다. 도시 조성에는 총사업비 1조4400억원이 들어간다.

정원도시·스마트도시·문화관광도시·건강도시를 목표로 관광·주거·일자리·의료 기능을 갖춘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도시개발 단계부터 설계한 전국 유일의 도시로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를 구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기업도시 '솔라시도' 8.2km 구간에 12인승 자율주행 자동차 7대가 운행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예시. (해남군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양 관광·레저거점 조성 등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교통수단 없던 완도 넓도·다랑도 여객선 운항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사업' 선정 넓도, 1일 2회 운항 시작 다랑도, 이달말부터 운항 개시

완도 고금 넓도와 금일 다랑도에 여객선이 새로 운항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고금 넓도와 다랑도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정부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에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된다.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인건비와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완도군과 고금 넓도, 금일 다랑도 마을 공동체는 7개월간 운항준비를 끝냈고, 고금 넓도는 지난 달 26일부터 1일 2회 선박 운항을 시작했다. 금일 다랑도는 이달 말에 선박을 운항할 예정이다.

선박 운영 및 운항은 각 마을 공동체에서 맡는다. 고금 넓도와 금일 다랑도에는 여객선이 없어 주민들이 사선을 이용해 육지를 다녀야 했다.



완도군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으로 넓도를 운항하는 선박. (완도군 제공)

완도군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상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가 많은데 항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에 KIA 전 감독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 건립

상만리 아리랑 관광단지 일원 호텔·실내연습장·클럽핑장 등 연말 착공...2026년 5월 완공

진도에 서정환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의 이름을 내건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이 들어선다.

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진도서정환 베이스볼타운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서정환 ㈜진도서정환베이스볼타운 대표가 참석했다.

이른바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은 임회면 상만리 진도 아리랑 관광단지 일원에 들어선다. 올해 말 착공에 오는 2026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410억원을 투입해 국제 규격 야구장 4면을 조성할 방침이다.

천연-인조잔디 구장을 2면씩 꾸미고 150실 규모 호텔과 타운빌리지 60동, 실내연습장, 사우나, 클럽핑장 등도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프로·아마추어 야구단의 동·하계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진도군



김희수(왼쪽) 진도군수와 서정환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오는 2026년까지 진도 아리랑 관광단지 일원에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은 내다봤다.

진도군과 베이스볼 타운 측은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등 협력할 예정이다.

진도지역은 연중 따뜻한 날씨 덕분에 탁구, 럭비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 개최지이자 동·하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아왔다.

서정환 대표는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내야수로 활동한 뒤 해태 타이거즈 선수를 거쳐 1998-1999년 삼성 라이온즈 감독, 2005-2007년 KIA 타이거즈 감독을 지냈다.

서 대표는 "갈수록 학교 야구단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야구 불모지인 진도군을 야구 꿈나무 육성의 중심지(메카)로 만드는 게 앞으로 꿈"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광군 "1%대 저리 용자 신청하세요"

'주민복지·기업유치 용자사업' 10월20일까지 접수

영광군이 연 대출금리 1%의 '주민복지·기업유치 용자사업' 신청을 오는 10월20일까지 받는다.

용자 규모는 6억5000만원이다. 주민 또는 사회 초년생이면 1인당 2000만원, 기업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

건이 있다.

대출지원 대상은 한빛원전 주변 지역인 백수읍, 흥농읍, 범성면 주민을 먼저 선정한다.

영광군에 1년 이상 사는 주민 또는 사업자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면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 상담을 받은 뒤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용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리 용자 지원으로 주민 또는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비용 90% 지원

오염물질 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19일까지 신청

영암군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중소기업에 관련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영암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이 이번 지원사업에 1억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갖춰 오는 19일까지 영암군 환경기후과로 내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며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무안 공공용지 지적 기준점 온라인서 확인

5379점 다음달까지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전산화 구축

무안지역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에 설치된 '지적 기준점'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안군은 손으로 써서 관리되고 있는 지적기준점 5379점에 대해 5월부터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전산화 구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때 지적도 경계 결정에 활용되는 기준점을 말한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설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다.

무안군은 기준점 관리를 위해 해마다 1회 이상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점은 폐기 고시를 하고 신

규 설치한 점에 대해서는 신설 고시를 한다. 이는 지역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분할, 토지 매매 분할 때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다.

무안군은 항공사진에 비해 현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좌표값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는 3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수영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지적기준점 전산화가 완료되면 편리한 자료 제공과 도로 확장·포장사업, 도로 굴착 공사 때 위치 정보를 제공해 공공시설물 망실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지적측량 시행으로 군민 재산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산업보건의 위촉

근로자 건강진단 검토·건강 장애 원인 조사·자문 등 역할

목포시가 중대 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위촉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박요섭 전남산업보건연구원 원장을 산업보건의로 선임하고 지난 1일 위촉장을 전했다.

산업보건의의 위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이다.

박요섭 산업보건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다.

올해 연말까지 1년간 목포시 소속 현업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건강 보호 조치, 건강장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목포시는 지난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했다.



박홍률(오른쪽) 목포시장이 박요섭 전남산업보건연구원 원장에게 산업보건의 위촉장을 전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시 소속 종사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